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から得た教訓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李, 文雄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66

「2002年ソウルスタイル」展から得た教訓

李 文雄

日本の国立民族学博物館が開催した特別展「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くらし」は、韓国の生活文化展示の新しい章を開く画期的な展示として記録されるに十分なものだったであろう。この展示は日本の研究者たちによって企画および調査研究され日本で展示されたが、このような規模の調査と展示は韓国でも前例がないという点で、この特別展は日本人の観覧者たちが現代韓国の生活文化について理解する手助けとなるだけでなく、生活文化研究のための記念碑的なプロジェクトとして記録されることだろう。

人々はおよそ、自分たちが住んでいる社会の中で現在進行している社会文化的な変化について、特段の意識を持っていないものである。一般人はもちろんのこと、社会文化現象を研究する研究者たちですら、これに関しては同様である。異文化については高い関心を示しつつも、自文化の研究や自文化の変化そのものについては特に注目していない。おそらくこのことは、誰でも日常的に接している自己の文化について、その変化を意識できずにいるためだろう。

だが、異文化に接した時には、生活様式を構成している諸要素の一つ一つが自文化の方式とは違って新鮮に感じられ、またその差異に注目することにもなる。このような点から生活文化の研究において、国内の学者たちに注目できない部分まで外国人学者の研究が研究対象にしている例が多いが、その点は人類学の研究において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まさにこのような点が、今回の民博の特別展において基礎となった佐藤浩司先生の生活財調査にうまく現れている。ある家族が所有し、使用している一切合財の生活財を徹底的に映像で記録し、分析し、かつ生活財全体を民族学博物館の所蔵品として購入して特別展を企画したことは、実は韓国では想像だに出来ないばかりか、発想自体からして新鮮なものだった。

この特別展は、日本人の観覧客たちにとっては現代の韓国文化の理解に大きな手助けとなっただろう。日本の文化においては、個人のプライバシーを尊重する観念が、韓国よりも遥かに強いものと思われる。韓国を旅行した日本人観光客たちが、韓国人の家庭を直接訪問し、韓国人が暮らす現場の生々しい姿を観察する機会を得るということは、難しいことであったはずだ。また、もしもそのような機会を得たとしても、他人の家に入って台所の冷蔵庫を開けてみるとか、箆箆や倉庫を開けて、その中に何がどのように保管されているかを覗き見ることが出来るような機会を得るということは、難しかったであろう。このような点からして今回の特別展は、多くの人々の好奇心を充足させるに十分なものであったことだろう。別の面では、単にある生活財の存在それ自体を超えて、

韓国人がそれらをもって何をしていたのか、どのように暮らしていたのか、そしてそこにどのような意味を与えていたのかに関心を持つこととなったならば、この特別展は韓国文化一般の理解に重要な基盤を提供したこととなる。

「李さん一家」の生活財が日本に渡り展示され、民博の収蔵品として永久保存されるということには、重要な意味があると韓国側でも考えている。この3,000余点の生活財は、今や李さん一家の手を離れたのである。この生活財は、一軒の韓国人家の「2002年のタイム・カプセル」として、日本の一博物館に永久所蔵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おそらくこれは、韓国側ではまったく試みすら出来ない重要な作業だと思われる。韓国では、文化現象が常に変化の過程にあるため、そのようなタイム・カプセルを作る必要性を感じる事が出来ないかもしれない。だが、時が経ち数十年・数百年後には、過去の生活の姿がどのようであったのかを目に出来る資料がないということを残念に思うことだろう。

私の個人的な経験によっても、この点は明らかに実感したことがある。現在の民博の韓国生活財所蔵品の中には、私の故郷である蔚山で蒐集されてきたものが少なからずある。これらは、1936年の夏に日本の民俗および社会医学的調査チームが蔚山の達里で現地調査を行った際に蒐集されたものである。この調査には、民俗学的調査を担当した東京のアチック・ミュージアムの宮本馨太郎・小川徹・村上清文など同人3名と、社会医学的調査チームである東京帝国大学の学部生12名が調査員として参加した。この時に調査地である達里と蔚山の姿を記録した映画（[財団法人]宮本記念財団所蔵；13分35秒）は、60余年前の蔚山の人々が生きていく姿を生き活きと見せてくれる貴重な映像資料として現存している。この時に蒐集された生活財は、その後アチック・ミュージアムの所蔵品に加えられ、最終的に今では民博の所蔵庫に入っている。私はこの生活財所蔵品を「民博の蔚山コレクション」と呼び、その背景についての情報を集めて、『民博通信』（1996年、No.73: pp.16-29）に一編の文章として発表したことがある。このコレクションの生活財は、1930年代に主に農家で使用されていたものとして、今や蔚山においてすらも探し出すことが出来ないようなものである。繰り返せば、もうこのようなものを見るためには日本の民博の所蔵庫に来るしかないのである。

今回の特別展を通して民博に構築された韓国人家の「2002年のタイム・カプセル」も同様の性格のものだと思われる。「李さん一家」の生活財は、時が経つほどに価値を増したコレクションとなるだろう。李さん一家はこの生活財を民博に譲渡し、新しいものを揃えた。もちろん生活様式に少なからぬ変化があることだろう。だが明らかなのは、このタイム・カプセルが、今後もいつでも2002年のソウルのある都市家庭の生活財を民族誌的現在（ethnographic present）の状態で語ってくれるという点だ。これは、韓国文化研究のための一つの貴重なデータベースが民博に構築されたということ意味する。

私はこのプロジェクトの初めから資料蒐集と調査を経て特別展まで、そしてこのシン

ポジウムに参加するまで、現場を観察できる機会を持つことが出来た。これは私にとって実に幸運なことであった。朝倉敏夫・佐藤浩司両先生のパイロット・サーベイ、大野木啓人・中西啓両先生のソウルでの現地調査、そして佐藤先生の李さん一家調査現場にソウルで接し、ソウルから運送されてきた李さん一家の家財が日本の民博に到着する現場、そして展示を準備する現場も直接見る機会が私にはあった。この全過程の緻密な計画と体系的な管理は、私が得た貴重な教訓だった。そして何よりも、佐藤浩司先生の体系的で徹底的な生活財の調査と管理、そしてコンピュータでデータベースを構築するという研究は、私個人だけではなく韓国の「チブ研究会」構成員全員に生活財研究の一つの貴重な模範を呈するものだった。

佐藤浩司先生は、今回のシンポジウムで李さん一家の生活財資料をコンピュータ上で整理し、多様な次元で提示する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行って下さった。彼の分析方法は、生活財調査を更に一段階進展させた重要なものだったと思う。今後、彼のデータベースと分析結果がCDに作り上げられ、より多くの研究者たちに公開されれば、「佐藤浩司方式」は必ずや新しい研究分野を開拓した功労を認められることだろう。

特別展は幕を下ろし、李さん一家の生活財は民博の新しいコレクションとして残った。だが私はこの段階でこのコレクションと特別展の意味を更に活かすため、一つ提案をしたい。その提案とは、この生活財を使用していた主人公である李さん一家の生活史 (life history) 研究である。李さん一家はソウルの普通の市民ではあるが、彼 (女) らの社会的文化的な背景を理解しないまま、彼 (女) らの生活財だけで韓国文化一般を理解しようとするは無理だと考えられる。彼 (女) らの出身地域の背景・社会階層・学力・職業などとともに生活財コレクションを分析して初めて、韓国文化に対するいっそう意味深い描写が可能であろう。実のところ李さん一家は、韓国文化の中で伝統と現代の両方の軸を見せているという興味深い事例である。この家族の出身が韓国で伝統的な両班文化の要素を最も濃く残していると言える安東地方であり、また現在までも故郷と緊密な接触を保ちつつ生活しているという点からして、この生活財コレクションは韓国文化の現住所であるばかりか、「伝統」と「現代」の両面をあわせ持つ良い事例となりうる。だが一方で李さん一家は、首都ソウルで三代が同居しており、ホームページや家族新聞を作るなどしており、他の一般家庭ではなかなか見られないような特性を持っている。現代韓国の一般家庭の生活を代表する事例としては見難いという点も、このコレクションの性格を理解する上で必要な部分なのである。このような点は、李さん一家の生活史が作成されれば、もっと広い韓国文化の脈絡から理解され位置づけられることとなるだろう。

今回の民博の特別展「2002年ソウルスタイル——李さん一家の素顔の暮らし」は、実に大きな文化イベントであった。これを成功裏に終わらせた民族学博物館に心から拍手を送りたい。最後に、このプロジェクトを現場で引っ張っていらした朝倉敏夫先生と佐藤浩司先生の推進力と創意的探究心に、私は深い敬意を表したいと思う。

「2002년 서울 스타일」전에서 얻은 교훈

이 문용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이 개최한 특별전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택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는 한국의 생활문화 전시에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전시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시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기획, 조사/연구되어, 일본에서 전시되었지만, 이런 규모의 조사와 전시는 한국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 특별전은 일본인 관람자들에게 한국의 현대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연구를 위한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로 기록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異文化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自文化의 연구 및 自文化의 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자기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異文化를 접했을 때에는 생활양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하나 하나가 자문화의 방식과는 차이가 나기에 새롭게 느껴지고 또한 그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생활문화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가 내국인 학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인류학 연구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이 금번 민박의 특별전의 기초가 되었던 佐藤浩司교수의 생활재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 가족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생활재 일체를 철저히 영상적으로 기록하여 분석하고, 또 생활재 전체를 민족학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입하여 특별전을 기획한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상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것이었다.

이 특별전은 일본인 관람객들에게는 현대 한국문화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 문화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관념이 한국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혹시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엌의 냉장고를 열어 본다든가, 옷장이나 창고를 열어 그 속에 무엇이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의 특별전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어떤 生活財의 존재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 특별전은 한국문화 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李先生一家」의 生活財가 일본으로 옮겨져서 전시되고, 민박의 收藏品으로 영구 보존된 것은 한국 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3,000 여 점의 生活財들은 이제 李先生 一家의 손을 떠났다. 즉 이 生活財들은 한 한국인 가정의「2002년 타임캡슐」로 일본의 한 博物館에 영구 소장된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한국 측에서는 도저히 시도조차도 할 수 없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문화현상들이 항상 변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임캡슐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 십년, 수 백년 후에는 과거의 생활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 점을 분명히 실감한 바 있다. 현재 민박의 한국 생활재 소장품 중에는 나의 故郷 蔚山에서 수집되어 온 것들이 적지 않다. 이것들은 1936년 여름 일본의 民俗 및 社会医学的 조사팀이 蔚山の 達里에서 현지조사를 왔을 때 수집된 것들이다. 이 조사에는 민속학적 조사를 담당한 東京 Attic Museum의 宮本馨太郎, 小川徹, 村上清文 등 同人 3 인과, 사회의학적조사팀에는 東京帝國大學학부생 12 명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조사지인 達里와 蔚山の 모습을 기록한 영화(「財團法人」 宮本記念 財團所藏; 13分 35秒)는 60여년 전의 蔚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자료로 남아있다. 이때 수집된 生活財들은 그 후 Attic Museum의 소장품에 포함되어 결국 지금의 민박의 收藏庫로 들어 왔다. 나는 이 생활재 소장품들을 “민박의 蔚山 컬렉션”으로 부르면서 그 배경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 「民博通信」(1996, No.73: pp.16-29)에 한편의 글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컬렉션의 生活財들은 1930년대에 주로 農家에서 사용되던 것들로 이제 蔚山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민박 收藏庫로 찾아와야 한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민박에 구축된 한 한국인 가정의 「2002년 타임캡슐」도 마찬가지로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李先生一家」의 生活財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진 컬렉션이 될 것이다. 李先生一家는 이 生活財들을 민박에 讓渡하고 새로운 것들로 채웠다. 물론 생활양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타임캡슐은 앞으로도 언제나 2002년의 서울의 한 도시 가정의 生活財를 民族誌的現在(ethnographic present)의 상태로 말해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문화연구를 위한 한 귀중한 database가 민박에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자료수집조사를 거쳐서 특별전까지, 그리고 이 심포지움에 참여하기까지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행운이었다.

나는 朝倉敏夫, 佐藤浩司교수의 pilot survey, 大野木啓人, 中西啓교수의 서울 현장

답사, 그리고 佐藤교수의 李先生一家 조사 현장을 서울에서 접했고, 서울에서 운송되어 온 李先生一家의 家財가 일본의 民博에 도착하는 현장, 그리고 전시를 준비하는 현장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이 전체과정의 치밀한 기획과 체계적인 관리는 내가 얻은 귀중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佐藤浩司교수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생활재 조사 및 정리, 그리고 컴퓨터로 database 를 구축한 연구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의 집연구會 구성원 모두에게 生活材研究의 한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佐藤浩司교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李先生一家의 生活材자료를 컴퓨터 상에 정리하여 여러 차원에서 제시하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방법은 生活材연구를 한 차원 더 높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의 database 와 분석 결과가 CD 로 제작되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佐藤浩司方式」은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특별전은 막을 내렸고, 李先生一家의 生活材는 民博의 새로운 컬렉션으로 남게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단계에서 이 컬렉션 및 특별전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싶다. 즉 이 生活材들을 사용한 주인공인 李先生一家의 生活史(life history) 연구를 提案하고자 한다. 李先生一家는 서울의 보통 시민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들의 生活材만으로 한국문화 일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출신 지역 배경, 사회 계층, 학력, 직업 등과 함께 生活材컬렉션을 분석해야만 한국문화에 대한 한층 더 의미 있는 그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李先生一家는 한국 문화중 전통과 현대의 두 가지 軸을 함께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家族이 韓國에서 전통적인 兩班文化의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安東地方出身이고, 또 현재까지도 고향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生活材컬렉션은 韓國文化의 현주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傳統’ 과 ‘現代’ 의 兩面을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李先生一家는 수도 서울에서 3代가 함께 살고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家族新聞을 만드는 등으로 다른 보통의 가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현대 한국의 일반가정 생활을 대표하는 사례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도 이 컬렉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점들은 李先生一家의 生活史가 작성되었을 때에 더 넓은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位置지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번 民博의 특별전 「2002년 서울 스타일——이선생님댁의 살림살이를 있는 그대로」는 실로 거대한 문화 이벤트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게된 民博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이끌어온 朝倉교수와 佐藤 교수의 추진력과 창의적인 탐구심에 나는 진정으로 敬意를 표하고 싶다.

